

# SIMPAC STORY

2013 NEW YEAR VOL. 21

-2013-

#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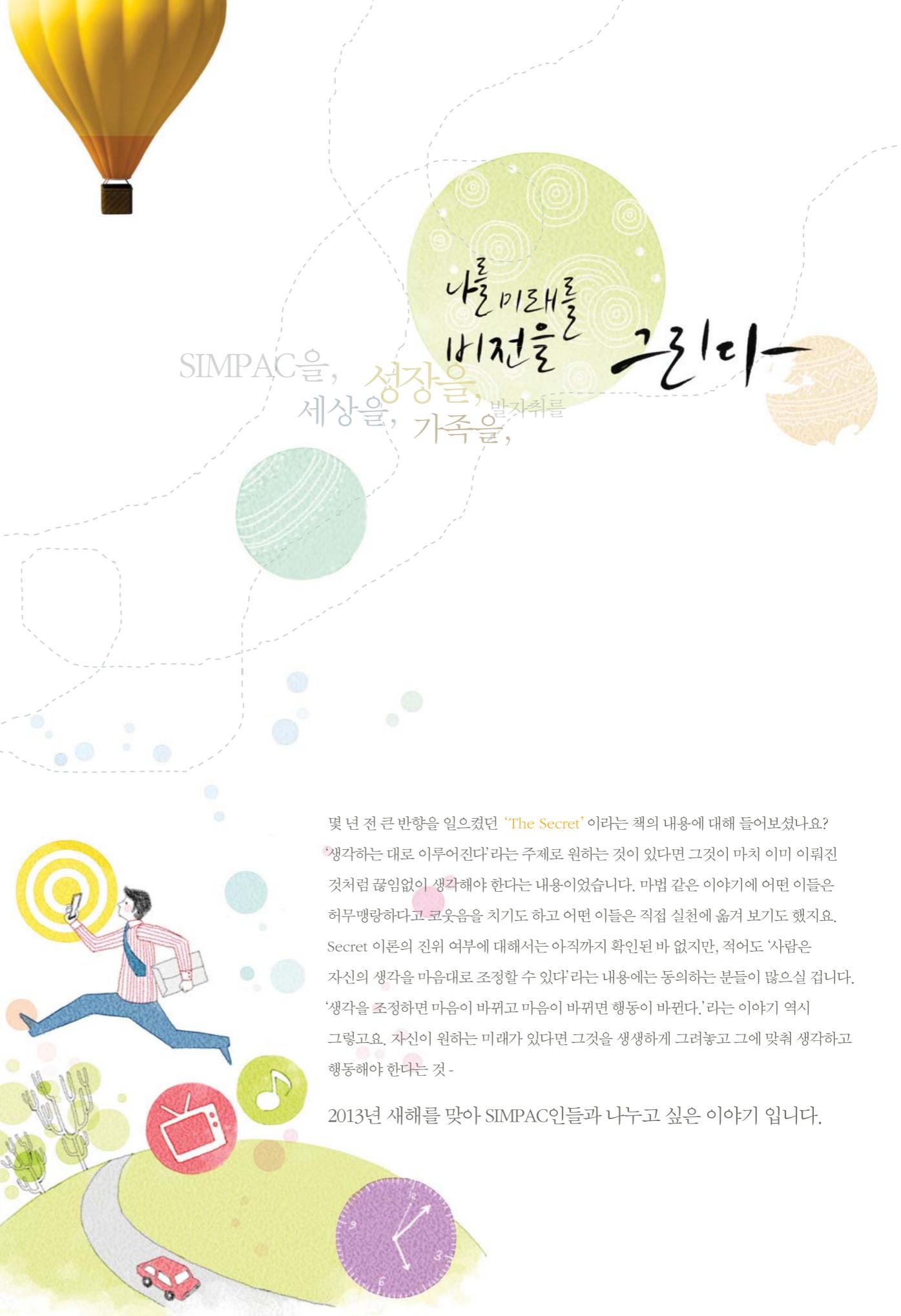
SIMPAC'S MESSAGE  
계사년 신년사  
나를 그리다  
새해바라기  
미래를 그리다  
팀 별 파이팅 메시지  
비전을 그리다  
Special Column



# SIMPAC STORY

2013 SIMPAC STORY NEW YEAR VOL. 21

<b>04</b> SIMPAC's Message	계시년 신년사
<b>08</b> 나를 그리다	새해바라기
<b>12</b> 미래를 그리다	팀 별 파이팅 메시지
<b>16</b> 비전을 그리다	Special Column
<b>22</b> 우리는 SIMPAC패밀리	SIMPAC메탈로이 전기로 김용호 반장 가족
<b>26</b> With Us	SIMPAC메탈 한마음전진대회 현장스케치
<b>30</b> 칠칵! 우리 팀의 하루	SIMPAC메탈 서비스팀
<b>34</b> SIMPAC NEWS	SIMPAC소식
<b>37</b> Letter from SIMPAC인	칭찬합니다
<b>38</b> 다른그림찾기	다른그림찾기
<b>39</b> 우리들의 게시판	우리들의 게시판



몇 년 전 큰 반향을 일으켰던 'The Secret'이라는 책의 내용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마치 이미 이뤄진 것처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법 같은 이야기에 어떤 이들은 허무맹랑하다고 코웃음을 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직접 실천에 옮겨 보기도 했지요.  
 Secret 이론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지만, 적어도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는 동의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생각을 조정하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라는 이야기 역시 그렇고요. 자신이 원하는 미래가 있다면 그것을 생생하게 그려놓고 그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 -

2013년 새해를 맞아 SIMPAC인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SIMPAC STORY 2013년 NEW YEAR | 통권 21호 | 발행인 최진식 | 발행일 2013년 2월 4일 |  
 발행처 주SIMPAC홀딩스 02-3780-490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 심팩빌딩 13층 |  
 기획 주IR큐더스 02-6011-2000 | 편집 및 디자인 주IR큐더스 02-6011-2000 | 인쇄 영은문화

## 사보담당자

주SIMPAC홀딩스 이승훈 대리 02-3780-4906 gausy@simpac.co.kr  
 주SIMPAC홀딩스 권희정 02-3780-4907 hjkwon@simpac.co.kr  
 주SIMPAC 김학중 대리 032-510-0033 hjkim@simpac.co.kr  
 주SIMPAC메탈로이 선광규 054-271-8724 kgsun@simpac.co.kr  
 주SIMPAC메탈 강승삼 041-360-0124 sskang@simpac.co.kr

## SIMPAC'S MESSAGE



친애하는 SIMPAC 가족 여러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로운 영물이라는 뱀의 해를 맞이하여 SIMPAC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12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바보'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바보의 우직함으로 기본에 충실한 SIMPAC이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런 소망이 씨앗이 되어 지난 한 해 우리는 국내외 어려운 시장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창출 및 확대를 일궈냈습니다. 이것은 임직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보처럼 우직하게 꾸준히 가치를 창출하면서 시장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은 결과입니다. SIMPAC그룹이 바보ZONE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한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늘 미래는 어렵고 두렵다고 얘기합니다만, 2013년 국내외 시장 상황은 사면초가의 형국이 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피할 수 없는 도전 앞에서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모든 임직원이 치열하게 묻고 고민하면서 답을 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R&D 투자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장과 고객은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는 우리 제품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고객에게 탁월한 가치를 제공하며 시장을 리드하기 위해서 R&D 투자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둘째, 철저한 원가절감 및 재무구조 개선으로 수익 창출력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직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원가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영업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고객들을 확보해야 하고, 생산은 경쟁력 있는 원가 확보를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사적으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비용의 낭비요소를 철저히 제거해 감으로써 Cash Flow를 개선해나갈 시기입니다.

셋째,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내겠다'는 끝장정신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에만 안주하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간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하던 대로, 배운 대로',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도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보지도 않고 '해낼 수 있을까' 의심부터 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더 나은 제품 개발, 더 넓은 시장 개척을 통하여 성장의 기반을 확대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모든 임직원이 화합하고 신바람 나는 SIMPAC, 위기에도 강한 SIMPAC을 만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수록 서로를 격려하며,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아울러 SIMPAC 임직원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우리는 해낸다는 끝장정신으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차동엽 신부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2013년 계사년 시작의 테이프를 힘차게 끊고자 합니다. "역사 아래 꿈 시장에 불경기란 없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SIMPAC그룹 회장 최 진 식



친애하는 SIMPAC 임직원 여러분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3년은 뱀의 해입니다. 뱀은 풍요와 재물, 그리고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느 해 보다 어려운 시장상황이 예상되지만 뱀과 같은 지혜로 이를 헤쳐나가 SIMPAC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2년 우리 SIMPAC은 국내외 경기의 전면적인 침체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기록하며 뜻 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공장동 증축 및 가공설비 증설을 통한 생산 CAPA 증대를 기반으로, 태국 최대규모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타이서밋 그룹을 포함하여 해외유수의 고객들과 당사 생산의 60%가 넘는 프레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해외메이저 업체에서의 수주를 발판으로 기타 업체들과의 신규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2013년 세계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이라는 4자성어를 희두로 삼고 있습니다. 승풍파랑이란 '거센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정진하다 보면 기슭 속에 품은 뜻을 기필코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13년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모든 기업들이 그 어느 해보다 생존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우리의 할 일은 더욱 분명합니다.

주식회사 SIMPAC 대표이사 전 지 중

첫 번째는 바로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은 결국 생산제품의 품질에서 생존 유무가 결정됩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우리의 고객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은 투자할 만한 제품입니다. 방법은 결국 경쟁사와는 차별화 된 고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품질이라는 무기가 있다면 기업의 생존이 외부 경제환경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생존을 넘어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핵심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시장의 확대입니다. 경기침체가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해외시장의 고객층을 넓혀 가는 것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지역의 고객층 확보를 통해 일부 지역의 경기 불황으로 인한 수주감소의 위험을 피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브랜드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질, 기술력 등의 기본요소에 더불어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만 합니다. 미시적인 측면에서 고객환경의 변화에 발맞추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가 속한 시장환경, 더 나아가 산업 전반적인 환경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고객의 요구이전에 개선 적용 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 드린 품질 향상, 해외시장 확대, 유연성 확보라는 세 가지 전략은 장기불황으로 접어든 이 시기에 기업생존의 여부를 결정짓는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품질이라는 기본요소가 바탕이 되어야만 나머지 전략들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해 보다 기본에 충실한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더 넓은 세계로 비상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2013년 계사년 새해, 유연함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예리한 눈빛으로 미래를 응시하며 한 꺼풀 허물을 벗어 성장하는 뱀의 혁명함을 본받는 SIMPAC인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맥내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 1일 새벽,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몇몇 직원들과 함께 월포 용산(龍山)으로 신년 안전 해맞이를 갔습니다. 태양은 그곳 바다에서도 어김없이 아름답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눈부시고 찬란한 햇살이 바로 구름에 가려 강렬함이 퇴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경제 사정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2013년은 경제적으로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경기회복 시점의 예측도 어려우며, 기업은 생존을 위한 장기전, 전면전에 직면해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회사의 주력사업인 합금철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국내외 설비 신·증설 및 합리화로 생산능력은 대폭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 및 국내 철강사들의 감산 등으로 수요는 크게 감소하여 이제 저가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합금철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합금철업계는 경쟁력 면에서 더욱 취약합니다. 게다가 전력요금은 또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2년 신년사에서 제가 생존게임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저가원료 사용 등을 통한 극한의 원가절감, 포항·당진 공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Flexible Production, 원료 및 자재 구매와 판매 Route의 다양화를 도모하자고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전년에 근간으로 삼았던 추진내용을 금년에 더욱 확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초(超) 경쟁(Hyper Competition) 시대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회사의 기초체력보강과 체질개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어진 일은 반드시 끝장을 본다는 '끝장 정신'을 우리들 기슴속에 각인 시켜야 할 것입니다.

#### 임직원 여러분!

2013년 경영환경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걱정만 하기에 앞서 R&D를 통한 원가절감과 신제품 개발, 생산의 유연성과 민첩성을 확보하고, 우리 모두의 Mind를 긍정적이고 도전적이며, 끝장정신으로 무장한 뒤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갑시다. 다시 말씀 드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고 성장하듯이 우리도 다시 태어나야 초(超)경쟁시대에도 생존을 넘어 풍요로운 한 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기대합니다.

주식회사 SIMPAC메탈로이 대표이사 이상일



친애하는 SIMPAC가족 여러분!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SIMPAC인이 됩시다.

새로운 희망을 품은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 아침을 맞아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SIMPAC가족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103년은 계사년, 뱀의 해입니다. 뱀은 예부터 불사와 풍요,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렁이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용이 된다고 믿거나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믿어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또한 생태상 뱀이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벗는 것을 두고, 스스로 구각(舊殼)을 벗어 새 삶을 시작하는 지혜를 의미하는 상징적 동물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 한 해는 우리의 과제와 허물들을 벗어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2년은 매우 힘든 한 해였습니다. 2011년도부터 시작된 서유럽 금융위기로 유럽경제가 급격히 침체되고, 미국 및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등 여러 가지 대외여건으로 인해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주식회사 SIMPAC메탈 대표이사 서련석

SIMPAC메탈에게 2012년은 원년의 해라 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3년 여의 공사 끝에 드디어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친환경 합금철공장을 준공하기에 이르렀고, 성공적인 중·저탄소 폐로망간 생산을 통해 종합합금철메이커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기까지 헌신적으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신 SIMPAC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희망과 꿈을 안고 시작하는 SIMPAC메탈호 앞에 펼쳐진 경영환경은 유감스럽게도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세계 철강경기가 최악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철강업체들은 공급과잉을 견디지 못해 감산에 나서고 있으며, 초우량 기업이라는 포스코마저 비상경영체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SIMPAC인의 기상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 하였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기업간 경쟁에서 대가 없이 주어진 행운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기업 구성원 모두가 업무에 애착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업무영역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창조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용기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SIMPAC인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방향으로 일치단결해야 하며, 원가절감을 생활화하여 회사 경쟁력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친애하는 SIMPAC가족 여러분!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욱 위대하다!”라는 말과 같이 적극적이고 단합된 모습으로 올 한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갑시다. 다시 한번,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SIMPAC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웃음과 건강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3 Happy New Year

나를 그리다

## 2013 계사년, 뱀띠 SIMPAC인에 묻습니다 - 올해는 우리들의 해,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

희망 가득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SIMPAC인 여러분 모두 멍이를 발견하면 주저 없이 빠르게 낚아채는 뱀처럼 자신의 소망을 향해 힘차고 단호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반석 삼아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2013년 계사년을 맞은 올해의 주인공 뱀띠 동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들의 특별한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 당신을 위한 5가지 질문!

- ① 나의 태몽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성격이나 현재 모습과 어울리는 내용인가요?
- ② 뱀띠 성격은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든 자력으로 이룩하려는 의지력을 갖고 곤경에 처해도 굴하지 않으며 용의주도하고 자유로운 발상을 겸비한 일꾼들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의 성격은 이것과 어느 정도 비슷한가요?
- ③ 지난 한 해 가장 인상 깊었거나, 행복했던 사건이 있다면요?
- ④ 2013년을 맞은 나만의 목표가 있다면요?
- ⑤ 뱀은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자신의 환경이나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⑥ 본인 이름으로 삼행시 - 동료들에게 보내는 파이팅 메시지를 만들어 주세요.



# 2013



### SIMPAC 조립1반 김기현 반장

- ① 산토끼가 집으로 들어와 품에 안기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 ② 끈기의 의지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 ③ 중대형 프레스를 시작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우리 반원들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덕분에 연말 SIMPAC 대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조금 넓은 집을 사서 이사한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 ④ 생활에서의 바람은 나와 25년 째 한 이불 덮고 자는 이쁜 아내 윤여사가 좀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울러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한 한 해를 보냈으면 합니다. 일에서의 목표는 조립1반이 중대형 프레스를 시작한 지 1년인데,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파트원들이 국내외로 다니며 배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줄 예정이며 다양한 기증들을 조립해, 시운전도 해볼까 합니다.
- ⑤ 밀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라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서서히 바꿔보려 합니다.
- ⑥ 김 : 김이 입에서 모락모락 나오는 추운 날씨에도  
기 : 기운 내어 오늘도 가족과 동료들을 위해 힘을냅니다.  
현 : 현재에 충실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SIMPAC 조립1반 파이팅!



### SIMPAC 천진법인 박문희 사원

- ① 고추 밭에서 아주 탐스럽고 빛이 나는 고추를 가슴에 품는 꿈을 조모께서 꾸셨다고 합니다. 고추는 남성을 뜻하며 붉은 색은 복을 뜻합니다. SIMPAC에 필요한 복 있는 남자라는 뜻 아닐까요?
- ②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일에 욕심이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 ③ 중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딸이 입학 1학기 과정을 상위권으로 수료한 것이 참 놀랍고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내 기쁜 한 해였습니다.
- ④ 개인적으로는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목표이고, 일에 있어서는 중국 소주사무소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것입니다(A/S 협력업체 영업).
- ⑤ 행동으로 옮기기 전 한 번 더 생각해 실수와 오판을 줄이겠습니다.
- ⑥ 박 : 박차고 일어나  
문 : 문을 열어 보세요.  
희 : 빛이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 SIMPAC메탈로이 설비반 백선일 반장

- ① 설문 덕에 나의 태몽이 무엇이었는지 어머님에게 50년 만에 처음 여쭤 보았습니다. 가야산 밑의 큰 바위 틈 속에서 싱싱한 뱀 3마리가 시골집 마당에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 3형제를 낳았다고 합니다.
- ② 용의 주도한 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고 어려움은 묵묵히 잘 헤쳐 나가는 편이며, 나름대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베풀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 ③ 지난 여름에 1박 2일로 정동진을 다녀 왔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40대 후반 4 명이 새벽 1시 30분에 치킨 내기 족구도 하고 정동진 해돋이도 감상했고요. 선상 호텔 크루즈 배도 좋았습니다.
- ④ 우리 딸하고 있는 법대 공부에 지치지 않고 아들은 사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로서의 여러 길들이 열리길 바랍니다. 인생을 결정할 현명한 선택들을 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설비들-변압기, 인버터, PLC 등이 2013년 한 해 동안 안정적으로 운전되길 바랍니다.
- ⑤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욱 공부하고 정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 ⑥ 백 : 백 년 전통을 자랑하게 될 합금철 업계의 선두주자, SIMPAC메탈로이. 전 세계적 불황으로 위기가 다가오지만 모든 직원들이 선 : 선봉장이 되어 각자 맡은 임무에서 일 : 일사 각오 정신으로, 다 함께 성장하리라 확신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13 Happy New Year

## SIMPAC메탈로이 Roll생산팀 김윤성 과장

① 눈두렁에 구렁이 한 마리가 옆에 작은 뱀들을 데리고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들었습니다. 언젠가 그 구렁이처럼 큰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금의 제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② 업무를 보다보면 생산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 능력만으로 부족하다면 주변인이나 환경을 잘 활용해 해법을 반드시 찾곤 합니다. 이런 점은 뱀띠 성격과도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나요?

③ 올 가을에 제가 시는 아파트에 노래자랑 행사가 있어 아들과 함께 나간 적이 있습니다. 비록 입상은 못했지만 아들과 연습하면서 함께 한 시간이 무척 행복했습니다. 나름 노래도, 무대매너도 완벽했던 것 같은데, 심사위원이 아까워이라 못 알아 본 것이 아닐까요? 흥

④ 우선 가정에서 최고의 아빠가 되는 것이 목표겠죠. 돌이켜보니 일 핑계로 소홀했던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2013년에는 매달 적어도 한 번은 아들과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다녀볼까 합니다. 직장에서는 무엇보다 업무를 좀 더 Professional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 2공장 생산팀장이신 김대우 부장님이 그동안 부족한 저로 인해 고생하셨을 텐데 이제 슬슬 저로 인해 부장님이 위기위식을 느낄 만큼 성장하겠습니다.^^

⑤ 요즘 현실에 너무 안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자극이 될 수 있는 무언기를 찾아, 더욱 발전하고 싶습니다.

⑥ 김 : 김이 모락모락 나고

윤 : 윤기가 훨훨 흐르는 흰 쌀밥같은 우리 2공장 식구들! 2013년 목표인 성 : 성공을 위해 언제나 파이팅!!



## SIMPAC메탈로이 가공반 권용호 사원

① 저의 태동은 어머니께서 꿀벌들에게 쫓기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꿀벌은 근면, 성실, 풍요 등을 상징한다고 들었는데 평소 부지런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저와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님의 큰 도움 없이 결혼하고 아들 낳아 잘 키우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를 보면서 '무슨 일이든 자력으로 이룩하려는' 뱀의 의지를 담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도 빈틈없이 꼼꼼히 신경 쓰는 성격 또한 그런 것 같고요.

③ 지난 해 10월에 진행된 SIMPAC그룹 계열사 투어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공장 QSS활동으로 공장内外부 모두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지만 특히 당진공장에서 견학한 자동화 시설과 편의시설, 공장의 청결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④ 우선 생활 속 목표는 고유가 시대에 밟 맞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기, 연비 절약을 위해 자동차를 경차로 바꾸기가 있습니다. 업무에 있어서는 안전사고 없이 건강한 한 해를 보내는 것입니다.

⑤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가끔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 이 점을 고쳐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활동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⑥ 권 : 권용호라고 합니다.

용 : 용의 해는 가고 뱀의 해에는

호 : 호호 하하 웃음 가득한 일만 있었으면 합니다.



## SIMPAC메탈로이 기획재무팀 신혜령 사원

① 엄마가 길을 가고 계셨는데 주변이 갑자기 과수원으로 변해 복숭아가 진득 달린 나무들이 나타났고, 복숭아를 좋아하시는 엄마가 그 자리에서 배가 부르도록 드신 뒤 여러 개를 따서 주머니에 넣고 오셨다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느낌이 저와 복숭아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② 곤경에 처해도 굴하지 않는 성격과 자유로운 발상을 겸비했다는 부분이 제 성격과 좀 비슷한 거 같은데요, 힘들고 부정적인 상황



에 놓여도 늘 긍정적으로 사고하려 노력하고, 틀에 얹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편이기에 간혹 친구나 가족들에게 엉뚱하다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③ 지난 여름 친구와 강원도 바우길 8코스에 다녀왔습니다. 4시간 동안 힘들게 올라가 절경을 바라보니 서울의 빽빽한 생활 속에서 느껴보지 못한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힘들었지만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잊혀지지 않아 시간이 된다면 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④ 생활 속 목표 중 한 가지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기입니다. 운동량이 부족해 조금만 활동해도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새해에는 꼭 지켜야 할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일에 있어서는 업무를 좀 더 깊고 자세히 공부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안주하지 말고, 어학이나 업무 등을 더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⑥ 신 : 신년에는

혜 : 혜성처럼 낙은 모든 것을 쓸어내고 새로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SIMPAC인이 됩시다. 그리고  
령 : 영원히 행복하세요~

## SIMPAC메탈 생산팀 이슬기 사원



① 태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② 뱀띠의 일반적인 성격을 처음 알았네요, 저의 성격과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잘 당황하는 편이라서 용의주도하지 않거든요.^^  
③ 강원도 횡성으로 신입사원OJT를 갔었던 일이 기억나네요, 원래 지구력이 없는 편인데, 34Km 행군을 팀원들의 도움으로 해냈을 때 "나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구나.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라고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④ 운전면허를 꼭 따야 할 것 같습니다^^; 미루고 미루다 보니 어느 새 2013년이 되었네요.

⑤ 학교 졸업 후 첫 직장이 SIMPAC메탈이라 사회경험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업무에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입사한지 1년이 넘은 엄연한 SIMPAC인으로서 매사에 파이팅 넘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⑥ 이 : 이 세상에 힘든 일은 수 백, 수 천, 수 만 가지  
슬 : 슬퍼하지 말고 힘들어 하지도 말고  
기 : 기운차게 하루하루 보내봅시다!

## SIMPAC메탈 경영지원팀 김유림 사원



① 부모님이나 친인척분들 모두 제 태동은 꾸신 분이 없다고 하십니다

② 힘든 일이 있을 때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이겨내 경험으로 생각하며 극복하는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점은 비슷하지만, 용의주도하기 보다는 남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잘 하는 것 같습니다.

③ 2012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으라면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직원들과 한마음전진대회를 간 것이 기억납니다.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 된 것 같아 무척 뿌듯했습니다. 또한 얼굴만 보고 인사만 나누었던 직원분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④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한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⑤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공부하며 매사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⑥ 김 : 김진 맥주라도 님과 같이 먹는다면 행복합니다.

유 : 유머러스한 님과 함께 있으면 항상 즐겁습니다.  
림 : 님의 이름은 바로 동료입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2013년도 더욱 파이팅 합시다!!!

Happy New Year



**2013 NEW YEAR SIMPAC STORY**

**13**

부지런히 고객들을 방문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하고 실천합시다!

**고객지원팀 민한규 부장**

팀원 모두가 건강하고 부쩍 성장한 모습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2012년이었습니다. 언제나 '나부터 먼저 변하자'라는 생각을 머리 속 깊이 심어놓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객의 요구를 행동과 실천으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고객지원 팀 파이팅!!

**품질지원실 전성근 부장**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팀원들의 열정과 소소하지만 소중했던 지난 추억들이 있기에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는 2012년이었습니다. 팀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지난해의 아쉬웠던 기억과 상처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발전의 디딤돌로 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적인 2013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보다 스마트한 품질지원실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품질지원실 짜오(加油)~!

**생산팀 조규연 부장**

짜증나고 힘든 일도 한 해 동안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일해준 사내협력업체 직원 여러분, 공무반, 전기제어, 조립4반, 조립3반, 조립2반, 조립1반, 공정관리, 생산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3년에도 가족 다음으로 소중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파이팅!!

**설계팀 성기중 부장**

비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새로 입사한 신입 사원들을 잘 이끌어준 선임 사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잘 모르는 업무지만 최선을 다해 선배들을 도와 설계팀 목표달성을 기여한 신입 사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자신감은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자신감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올 해 더욱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팀 송경희 부장**

우리 팀원들 개개인의 협신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협력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여러분이 사랑스럽습니다. 2013년에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매사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바라며,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모든 일을 즐겨 봅시다. Global R&D를 위하여 아자 아자!

**구매팀 이양경 부장**

지난 한 해 바쁜 일과 속에서 각자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팀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2013년에도 모두 몸 건강 하시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울러 더욱 단합하여 서로 아껴주는 끈끈한 팀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전산팀 김태권 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지난 한 해 그룹웨어 개발에 정신 없이, 불평 없이 따라와 준 우리 팀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2013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에 모두가 oneness 되어 또 다시 좋은 성과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전산 팀 파이팅!

**재무기획팀 이상철 차장**

못난이 선임 만나 엄청 고생 많은 우리 재무 기획팀! 저 하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제가 밥 한번 쓸게요. 고마워요 재무기획팀!!! 올해는 우리 팀의 단단함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지만 강한 힘을 보여줍니다. 모두 힘냅시다.

### 인사총무팀 육필호과장

2012년, 바쁜 업무로 자신을 돌 볼 틈도 없이 고생하신 팀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2013년 한 해 더욱 바빠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함께 힘을 합쳐 헤쳐나갈 수 있는 인사총무팀이 되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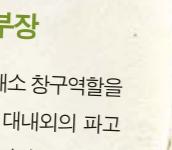
### Roll영업팀 김진현 부장

목표를 향해 열정을 갖고 뛰어준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 열정은 자신의 역량과 우리 Roll영업팀, 그리고 회사의 경쟁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사년, 우리 팀원들은 이러한 열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함이 아니라 더울 때는 시원하고, 추울 때는 따뜻한 물 한 잔처럼 적재적소(適材適所)의 SIMPAC인으로 우리 서기를 기대합니다..



### 인사총무팀 정기환 부장

한 해 동안 각 부서의 고충해소 창구역할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어려운 대내외의 파고를 이겨낸 우리 팀원들에게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새 가정을 이루고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는 경사를 맞은 팀원에게도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도 조직과 함께 화합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힘차게 출발했으면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건강이라는 밀천에서 출발함을 명심하여 개인과 가족 그리고 동료의 건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서로 서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계사년 힘찬 출발! 인사총무팀 파이팅!



### 2공장 품질안전팀 고광식 차장

지난 한 해 팀원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많은 난관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점에



무한한 감사 드립니다. 2013년에도 쇄빙선이 두꺼운 얼음 바다를 뚫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듯 앞으로 닥칠 위기를 끊끔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힘을 합쳐 파이팅 합시다!



### 기획재무팀 신재옥 부장

어느덧 기획재무팀이 포함 본사에서의 업무를 미감하고 서울사무소로 근무지를 옮겨 업무를 시작한지도 벌써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낯선 환경, 늘어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적응하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해 준 우리 최강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계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올 해도 부정적인 전망이 대부분이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합시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뜻”입니다.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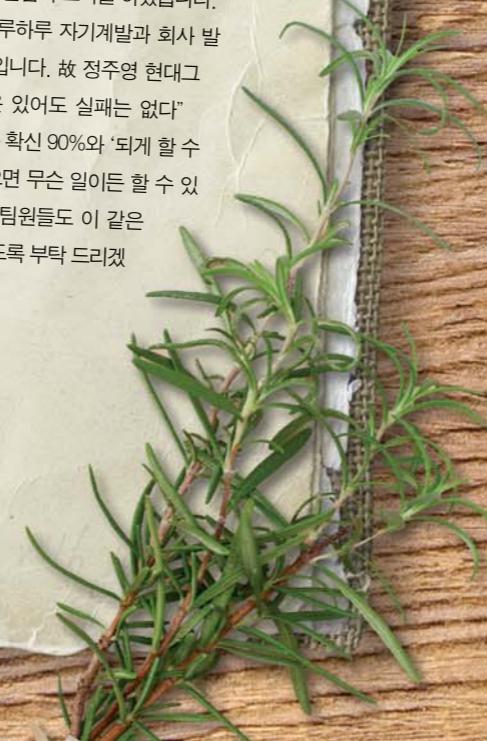


### 생산품질팀 최재우 차장

생산품질팀 여러분, 2012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 맑은 바 위치에서 열심히 제 뜻을 해내며, 회사와 나 자신을 위해 뛰었습니다. 올해 초 추운 날씨에도 4호 전기로 보수를 위해 팀원 모두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매진하여 뻐쁜 기간 내 재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금철 제품 수출이 많아서 생산과 물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팀원 여러분, 2013년도 하루하루 자기계발과 회사 발전을 위해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어록 중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말과 “반드시 된다”는 확신 90%와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 팀원들도 이 같은 마음과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FRULATTI  
Oak juice  
did



### 설비안전팀 김형옥 부장

박성배 차장, 강필구 대리, 김정훈 사원, 김혜미 사원, 지난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팀원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4호 전기로 보수, 하계보수, 집진기 Inverter 설치 등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힘든 가운데 설비 개선 및 개체, 기동률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맡은 바 직무를 다해 주신 팀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비행기는 이륙하는 순간 전체 연료의 반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연료를 아깝게 여겨 이륙하지 않는다면 비행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겠습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저와 팀원 모두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화와 열정으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합시다.



### 합금철영업팀 정창배 부장

지난 한 해 대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올 해에도 우리가 직면하게 될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비록 불확실성이 긴 터널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틱월한 역량을 가진 우리 팀원들이라면 팀워크로 뭉쳐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며 그 끝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열망과 기필코 실현해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데 달성하고자 하는 열망과 기필코 실현해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피할 수 없는 위기가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즐길 줄 알았습니까? 모두 같이 즐겨봅시다. 2013년도 파이팅!



### Roll생산팀 황병명 부장

오랫동안 몸 담았던 Roll영업팀을 떠나 새로이 Roll생산팀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팀원들을 믿고, 합심하여 최고의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oll생산팀 화이팅!!!



### 기술연구소 김대우 소장

지난 2011년부터 R예사업부에서 이뤄진 벤화와 혁신은 바로 팀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생산 현장에서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한 해 동안 열정적으로 노력했던 SIMPAC메탈로이 2 공장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와(구별)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짝 짹 짹).



다가올 미래에는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현장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그동안의 성과에 자신감을 가지고 좀더 혁신적인 변화로 2013년 최대 실적과 이익으로 SIMPAC그룹에서 가장 주목 받는 사업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 생산기획/원료구매팀 홍창석 팀장

새해가 밝았습니다. 팀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3년은 우리 팀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입니다.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고, 또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시장상황이 결코 쉽지 않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때일 수록 팀원 여러분의 열정과 잘 다져진 팀워크로 각자의 목표를 달성해내는 일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 생산팀 박승배 부장

2012년은 당진공장 완공 후 초기조업부터 안정화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한 해였습니다. 공장설립 초기라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준 생산팀 및 현장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013년에도 그간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설비물류팀 장진석 부장

2012년은 회사나 직원 모두가 새로이 출발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설비물류팀 팀원들의 노고는 전에 없던 것으로 다소 서투른 점도 있었지만 열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주었습니다. 밟아오는 새해는 쉽지 않은 한 해가 되겠지만 힘든 만큼 보람도 큰 2013년이 될 수 있도록 지식을 나누고 힘을 합치며 이를 극복해냅시다. 팀원 여러분! 우리 프로입니다. 프로로서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힘껏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 비전을 그리다

**미래로 가는 나침반, 비전  
- 해외 기업들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을까?**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길을 잊지 않게 해줄 나침반이입니다.

그리고 기업에게 그 나침반은 바로 '비전'이겠죠.

2013년 SIMPAC인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vision  
당신은 'SIMPAC의  
비전'을 알고  
있는가?

다국적 컨설팅 전문기업 맥킨지는 자문 의뢰를 받으면 가장 먼저 의뢰한 기업에 찾아가 임원, 간부, 평사원을 1명씩 골라 각각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이다. 세 사람의 답변이 비슷한 경우 컨설턴트는 사장에게 가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업은 건강합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반대로 세 명 모두에게서 서로 다른 답변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다. 거의 예외 없이 조직의 비전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 기업이다.

당신이 졸업한 고등학교의 교훈을 기억하는가? 인상적인 급훈이 있었던가? 칠관 위, 태극기 옆에 걸려있던 교훈이나 급훈처럼 많은 기업들의 비전은 액자 속의 구호인 경우가 많다. 기업의 비전은 별 고민 없이 작성되어 장식물처럼 벽에 걸린다. 많은 기업의 직원들은 회사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CEO가 그리는 회사의 미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러니 위에서 내려오는 결정을 기계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어떤 비전을 바탕으로 그러한 의사 결정을 내렸는지, 알고 일할 때와 모르고 일할 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눈을 감고 떠올려보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SIMPAC의 비전'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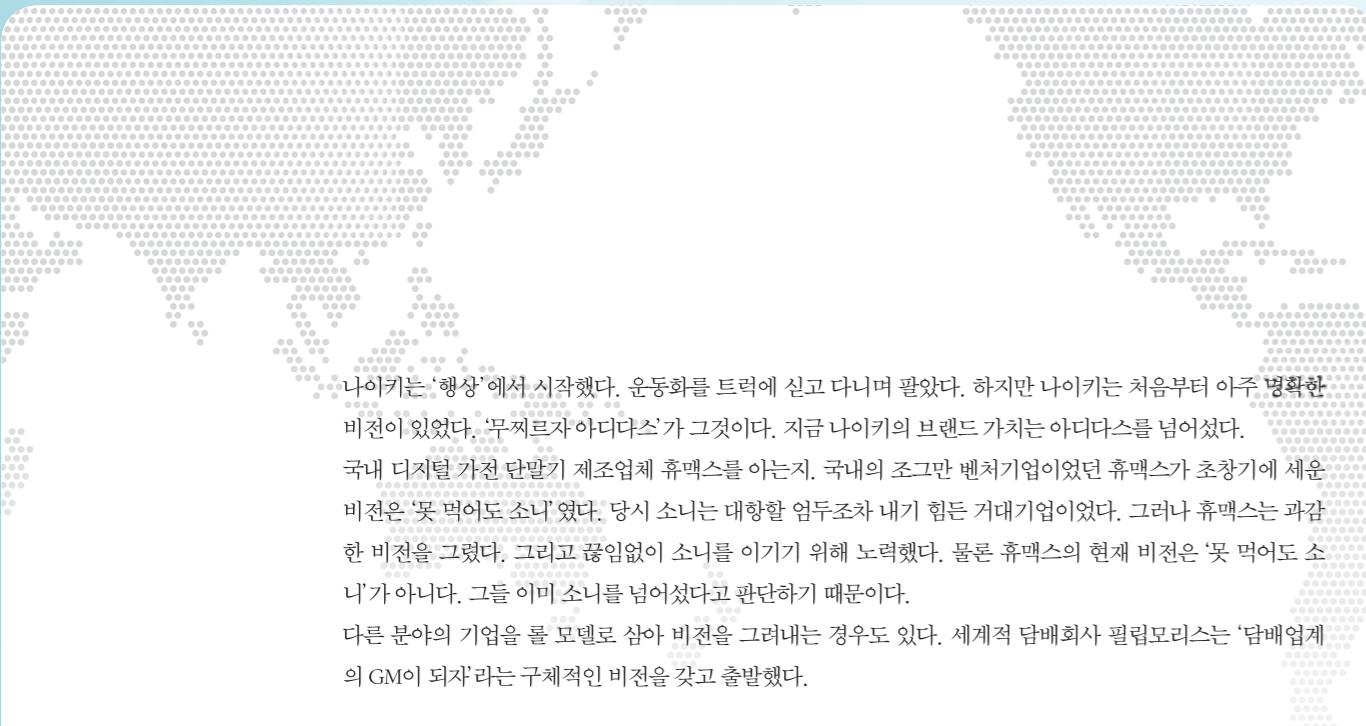
### 비전은 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세 석공 이야기는 비전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일화다. 돌을 다듬고 있는 석공 세 사람을 지켜보던 노인이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하고 물었다. 첫 번째 석공은 “저는 돌을 깨고 있어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몇 푼 받지도 못하니 참 못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두 번째 석공은 “기죽들을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중입니다. 먹고 살만 하면 이런 일은 안 할 겁니다.”라고 했다. 세 번째 석공은 “성당을 짓기 위해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제가 다듬는 돌은 성당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완성되면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 될 겁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다시 돌을 다듬기 시작했다. 비전에 따라 일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당신의 모습은 몇 번째 석공과 비슷한가? 함께 성장해 나갈 회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눈부신 미래를 그리면서 도전적이고 성실하게 일하는가?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다. 비전에 따라 일을 대하는 태도와 열의가 달라지고, 그 결과와 성취도 역시 달라진다.

### 성공을 이루어 낸 명확한 비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지금까지 존경 받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명확한 비전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약속했다. ‘1970년대가 되기 전에 미국인을 가장 먼저 달에 보내고 무사히 귀환시킬 것이다’라는 말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비전을 온 국민의 머릿속에 심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다.





나이키는 '행상'에서 시작했다. 운동화를 트럭에 싣고 다니며 팔았다. 하지만 나이키는 처음부터 아주 명확한 비전이 있었다. '무찌르자 아디다스'가 그것이다. 지금 나이키의 브랜드 가치는 아디다스를 넘어섰다. 국내 디지털 가전 단말기 제조업체 휴맥스를 아는지. 국내의 조그만 벤처기업이었던 휴맥스가 초창기에 세운 비전은 '못 먹어도 소니'였다. 당시 소니는 대항할 엄두조차 내기 힘든 거대기업이었다. 그러나 휴맥스는 과감한 비전을 그렸다. 그리고 끊임없이 소니를 이기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휴맥스의 현재 비전은 '못 먹어도 소니'가 아니다. 그들 이미 소니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의 기업을 둘 모델로 삼아 비전을 그려내는 경우도 있다. 세계적 담배회사 필립모리스는 '담배업계의 GM이 되자'라는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출발했다.

### 세계 최고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비전

1999년 포춘지는 20세기 최고의 사업가로 미국 '포드 자동차'의 창립자인 헨리 포드를 선정했다. '자동차의 대중화'라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전으로 자동차 산업을 20세기 선도 산업으로 정착시킨 것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포드 자동차는 설립 당시 이름있는 회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헨리 포드는 흙먼지를 날리며 툴툴거리는 마차가 지나가는 도로 위에서 자신만의 생생한 비전을 그려냈다. '누구나 한 대씩 소유할 수 있는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겠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고속도로에서는 마차가 사라질 것이고, 자동차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는 눈 앞에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는 비전을 세웠다. 하지만 임원회의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동의하지 않았다.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 세부적인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는 서민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지 않았다. 오랜 노력 끝에 자동차 부품 제조기술에 혁신적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는 자신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헨리 포드를 위대한 리더로 만들었고, 포드 자동차를 위대한 기업으로 만들었다.

###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 제시

"변화를 일으키려면 처음부터 비전과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변화는 따뜻히 '비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르노-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의 말이다. 그는 위기에 처한 닛산 자동차를 구하기 위해 투입되었고, 취임 후 새 비전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했다. 성공적인 비전을 수립한 후, 역시 성공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비전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비전이 명확해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젊은이들이 취업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두 가지가 소득의 규모와 기업의 비전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전이 제대로 공유된 조직일수록 에너지가 넘치고 조직의 역량이 결집된다. 개개인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현재의 행동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것처럼, 기업의 비전도 그러하다. 기업이 그리는 미래의 청사진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앞으로 무엇을 성취해 나갈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  
비전은 기업이 그리는 미래의 청사진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앞으로 무엇을 성취해 나갈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Vision  
비전

## 회사도 나도 함께 성장한다!

### 효과적인 비전 설정 이야기

Book

#### 리더를 꿈꾸는 당신을 위한 한 권의 책

〈경영전략〉 짐 콜린스

회사에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는 개인이 꿈을 갖느냐, 마느냐와 같다. 꿈꾸고 싶다면, 나의 회사가 꿈꾸게 만들고 싶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나와 회사의 비전을 점검해 보아도 좋겠다. 경영의 구루라고 불리는 짐 콜린스가 쓴 〈경영전략〉은 아주 교과서적인 책이다.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고, 다양한 사례도 많다. 이 책은 리더십과 리더십의 요건, 비전의 필요성, 비전을 만드는 방법, 비전과 현재의 갭을 극복하는 법 등 일상의 업무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조직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

회사와 나의 행로가 같은 곳을 향해 있다면 일은 즐거워질 것이요, 열심히 할 수록 회사의 발전을 돋고, 자기 자신도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갈 수 있기에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 훌륭한 비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라

훌륭한 기업의 비전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직원들의 가슴을 뛰게 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직원 모두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꿈을 공유하고,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기업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닌 하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비전 공동체가 되고 상상을 뛰어넘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 또한 비전이 있는 기업은 좋은 성과를 냈다고 자만하지 않으며 더욱 열정적으로 꿈을 향해 달려간다.

#### 거창하기 보단 내실 있는 비전을 추구하라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을 살펴보면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기업’, ‘초우량기업’, ‘초일류기업’을 내세웠다. 하지만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외쳤던 유수의 기업들이 IMF의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졌다.

선진 기업은 소박하지만 내실 있는 비전을 설정한다. 연간판매량 기준으로 GM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업계로 부상한 토요타는 ‘글로벌 비전 2020’을 제시했다. 와타나베 사장이 밝힌 핵심 지향점은 ‘동네 최고의 기업’이다. 누구나 감기에 걸리면 세계에서 가장 큰 병원보다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한다는 병원을 찾아간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든 도요타를 찾게 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가벼운 차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향후 10년 간 3만여 개에 이르는 자동차 부품의 무게를 조금씩 줄여나가면 지금보다 10% 정도 가벼운 차가 되고 연료 효율도 3~4% 높아지게 된다는 것. 소박한 비전이지만 이를 통해 그려내는 미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

#### 회사와 나의 비전을 일치시켜라

‘이 회사는 비전이 없어’, 또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라고 생각하며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 중에는 비전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의 것이 뚜렷한 사람도 없다.

회사에서 말하는 큰 방향에 대해 만족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속한 부서나 팀의 비전을 도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각 부서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큰 방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조직의 비전을 도출해보고, 그 안에서 나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이다.

회사와 나의 행로가 같은 곳을 향해 있다면 일은 즐거워질 것이요, 열심히 할 수록 회사의 발전을 돋고, 자기 자신도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갈 수 있기에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하라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관리 없이는 측정 역시 불가능하다’는 피터 드러커의 격언이 있다. 캐논, BMW, 필립스 등의 기업들은 일찍부터 기업의 비전이 구체적인 행동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일정 주기의 중장기 전략을 비전과 함께 재정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중대한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기존의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도 이러한 작업은 끊임없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반복해서 공유하라

잭 웰치 회장은 ‘회사의 비전을 700번 이야기해야 비로소 성과를 내더라’고 이야기했다. GE의 직원들이 이해능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했을까? 고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은 300번이 넘게 전국 곳곳의 보험설계사들에게 자신의 경영 방침을 설파하고 다녔다. 여유 시간이 많았기 때문일까?

그들은 알고 있었다. 리더가 의도한 성과를 내려면 직원에게 자신의 생각을 아무리 자주 설파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많은 기업들이 ‘소통’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비전의 성패는 그 내용이나 표현보다는 얼마나 내부 구성원들의 마음 속에 각인되고 내면화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호호, 하하하!  
함께 있는 것 만으로도  
웃음과 사랑이 샘솟네



### SIMPAC메탈로이 전기로 김용호 반장 가족

SIMPAC메탈로이 전기로 김용호 반장과 사랑스러운 아내 장정순씨, 그리고 이들의 자녀 - 든든한 3형제를 만나보았다. 중학교 3학년인 첫째 현수는 첫째답게 의젓하고, 중학교 2학년인 현준이는 둘째답게 서글서글,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막내 현민이는 표정에 장난기가 가득하다. 아들 3형제가 모이면 시끌벅적 할 줄 알았더니, 의외로 조용한 가운데 잔잔한 웃음이 흐른다. 이들과 함께 하니 행복한 기운이 슬며시 물려와 방안을 가득 채웠다.

### 엄마 아빠의 러브스토리를 알고 있니?

동갑내기 부부의 연애 시절은 얼마나 애듯했을까, 궁금해서 물었더니 “몰라요!” 귀여운 막내가 큰 소리로 대답한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다는 김용호 반장이 쑥스럽다는 듯 웃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나는데...” 한마디 하고는 다시 미소를 짓는다.

한참을 ‘호호호’ 웃던 아내 장정순씨는 “우리는 동창이에요.”하고 입을 열었다. 같은 중학교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두 사람은 스무 살이 넘어 동창 모임에서 다시 만났다. “남편은 제가 먼저 자기를 좋아했다고 주장하고, 저는 남편이 먼저 저를 쫓아다녔다고 얘기하죠.”

아내는 동갑내기 남편과 만나 살다 보니 아옹다옹 싸우기도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을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든다면 사랑한다.





“보면 볼수록 우리 남편이 참 진국이에요. 다들 우리 신랑 같은 사람 없다고 그러거든요. 가끔씩 제 편을 안 들고, 아이들 편을 들어줘서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아이들을 이해해 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아내의 남편 자랑에 사랑이 담뿍 묻어난다. 아무래도 배우자를 잘 만난 쪽은 남편인 것 같다. 아내가 미인이라 첫눈에 반하셨겠어요, 하니 김용호 반장은 이번에도 말없이 웃기만 한다.

### 사랑스럽고 든든한 삼형제

“우리 현수는 태권도 4단이에요.” 아들 자랑을 해달라니, 그제서야 김용호 반장은 이야기를 시작한다. 첫째 현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태권도를 8년째 계속하고 있다. 지금은 아직 ‘품’이지만, 15살 생일이 지나면 ‘단’으로 인정받는다. 체력이 있어야 공부도 잘한다는 부모님의 생각에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운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첫째 현수는 아빠를 많이 닮아서 그런지 중학생 같지 않게 의젓하다. 김용호 반장은 ‘현수가 언제 이렇게 많이 컸지?’ 느낄 때가 많다고. “가끔 한 잔하고 들어가면서 전화를 하면 마중을 나와요. 다 키웠다 싶어서 위로도 되고, 뿌듯하기도 하죠.” 말이 없는 것도 아빠를 닮았는지 현수는 빙그레 웃는다.

“현준이는 공부를 잘해요.” 둘째 현준이의 똘똘 뜻밖 표정을 보니 머리가 좋을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교구로 하는 두뇌게임에서 전국 1등을 한 적이 있다. 포항 대표로 서울에 올라가 게임을 했는데, 7살 때는 전국 2등, 8살 때는 전국 1등을 해서 장학금을 받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머리가 좋은 현준이가 더욱 성실하게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민이는 뭘 자랑해줄까?” 막내 아들을 꼭 안으며 아빠가 물었다. “제가 잘하는 건 옆 구르기예요. 그리고 다리 스트레칭.” 사내아이가 유연하기가 쉽지



않은데 놀라웠다. “매일 하는 건데요, 뭐.” 현민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으쓱한다. 막내의 귀여운 모습에 모두들 다시 한 번 웃음을 보러 터뜨렸다.

첫째는 의젓하게 엄마를 잘 도와주고, 동생들을 잘 돌본다. 둘째는 자기 할 일을 잘 알아서 하며 형을 돋는다. 막내는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드는 애교쟁이다. 아직 막내가 어려서 서로 아웅다웅 할 때도 있지만, 서로 돋고 의지하는 3형제의 모습이 벌써부터 든든하다.

“보면 볼수록 우리 남편이 참 진국이에요, 다들 우리 신랑 같은 사람 없다고 그러거든요.”

### SIMPAC메탈로이는 또 하나의 가정

김용호 반장은 결혼하기 전부터 SIMPAC메탈로이에 다녔다.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하나씩 낳아 기르는 동안 15년을 한결같이 일해 온 남편의 회사는 아내에게도 소중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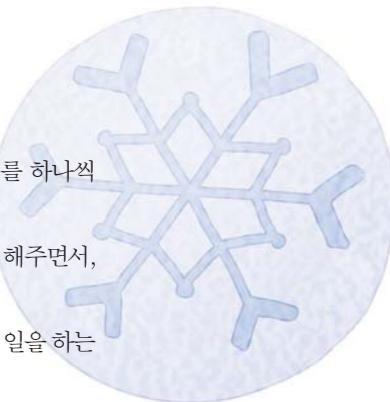
“남편이 몸담고 있는 회사잖아요. 우리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켜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해주면서, 아이들의 꿈도 함께 키워주는 곳이죠. 또 하나의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속 깊은 아내 장정순 씨는 아이들에게 아빠의 일터를 보여주고 싶다. 아이들이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저는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어요. 3교대로 일하는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있을 때 저만 일하러 집을 나서려면 좀 미안하죠. 남편이 이해를 많이 해주고, 늘 잘해줘요. 그래서 고맙죠.”

영어학원에서 일하는 아내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쉰다. 3교대로 일하는 김용호 반장은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주말에 쉬게 된다.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보내는 휴가는 3개월에 한 번 꼴이다.

“우리 경주로 여행가요!” 아이들의 얼굴에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어난다. 마침 이번 주말이 3개월만의 가족 휴가다. 다섯 식구가 오순도순 모여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손에 손을 잡은 다섯 개의 그림자가 다정하게 겹쳐지면 참 행복할 것 같다.





**보는 행사 NO!**  
**즐기는 행사 YES!**

##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SIMPAC메탈 한마음전진대회

지난 10월 27일과 11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충남 흥북면 소재 용봉산에서는 SIMPAC메탈 임직원들의 함성이 널리 퍼졌다. 행사명은 그 이름도 훈훈한 '제1회 한마음전진대회'! 오전에는 산행, 오후에는 명랑운동회로 구성된 이 행사는 앉아서 보는 행사가 아닌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 개인종목 2~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게임으로 구성되었다. 식사하고 헤어지는 기준의 여느 행사와 달리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땀 흘리며 마음으로 부터 가까워지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함께 어울려 신나게 뛰고 웃었던 그날의 현장을 들여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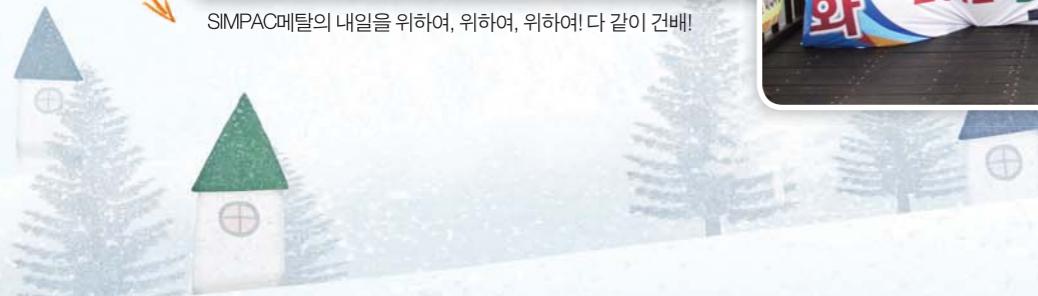
## AM 10:40 용봉산 언덕에서 화합을 외친다!



땀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정상에서 부는 바람은 무엇보다 시원하다.



SIMPAC메탈의 내일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다같이 건배!



## PM 14:00 남녀노소 불문하고 신나게 즐기는 명랑운동회!

### 게임 1 지네발 릴레이



하나둘, 하나둘! 구령에 맞춰 서로 의지하라.

### 게임 2 단체 줄넘기



하늘 짚고 땅 짚고,  
어이쿠, 비닥 짚고!

### 게임 4 깃발 서바이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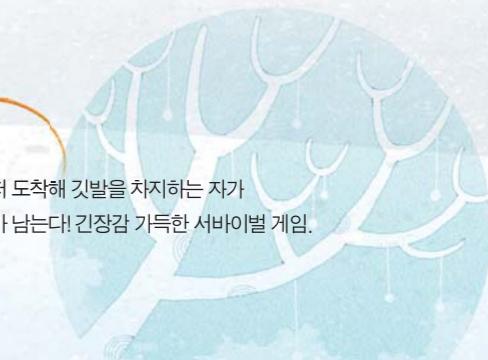


앞으로! 앞으로!  
한 배에 탄 선원들처럼  
에어봉에 올라타 풀밭 위  
향해를 하고 있는  
SIMPAC인들



### 게임 3 에어봉 릴레이

먼저 도착해 깃발을 차지하는 자가  
살아 남는다! 긴장감 가득한 서바이벌 게임.



지네발릴레이라는 경기 이름처럼  
길게 이어져 한 몸이 된 사람들.

게임 5  
트위스트

팀의 승리를 위해서 라면  
내 한 몸 바치리, 사정 없이 몸을  
흔들어 만보기 숫자를 올려라!

게임 6  
청홍 판 뒤집기

이것은 뒷정리하는 모습?  
No, No! 바닥에 놓여진  
판을 팀 색깔로 뒤집어  
승리를 얻어내는 모습!

게임 8  
림보왕

개구리처럼 풀짜, 달을락 말락 엉거주춤,  
개성들 만큼이나 다양한 그들의 림보 자세

게임 7  
소리 지르기

으아악~~~!!  
비명에 가까운 고함소리에  
같은 팀 사람들의 응원소리도  
함께 커지고.

게임 9  
집단 닭싸움

누가 누가 잘하나, 무릎으로 진검승부!

게임 10  
계주

평범한 계주는 가라~구르고 뛰고  
열심히 망가지며 팀을 위해 달린다!

## PM 17:00 땀 빼고 즐기는 맛있는 바베큐!



신나는 노래자랑과 함께 즐기는  
꿀맛 같은 바베큐 파티~!  
기분 좋고, 맛도 좋고!

## PM 19:00 마무리는 기분 좋은 시상식으로!



한마음전진대회의 마무리는 기분 좋은 시상식으로!  
SIMPAC인들은 상품을 품에 안고 행복한 저녁을  
맞이했다고 한다.



## SIMPAC메탈 설비물류팀

**다재 다능한 당진의 일꾼들,  
발을 맞춰 앞을 향해,  
GO!**

**새해 더욱 심기일전하고 역량 키우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할 터**

2013년 새해 1월에 찾은 SIMPAC메탈. 차가운 바람과 진눈깨비가 훌날리는 가운데 당진 사옥은 편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 SIMPAC메탈 설비물류팀의 장진석 팀장을 비롯해 6명의 팀원들이 밝은 얼굴로 한 자리 모였다. 새해를 맞이한 그들은 어느 때보다 각오가 남달라 보였다.

당진 사옥 1층에 모인 설비물류팀은 공장 시스템이 원활히 잘 돌아가도록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팀이다. 팀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니 짚고 활기찬 기운이 풍긴다. 7명의 소수 정예로 구성된 설비물류팀은 장진석 팀장과 김형준 대리 그리고 경력사원인 손승권 사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1년차 신입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20대인 이들은 김형곤, 김지훈, 이제형, 김보람 사원이다.

팀의 역할에 대해 장진석 팀장은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필요한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라며 입을 열었다. “특히 공장 설비 관리해서는 기계 설비, 전기 설비, 유지 설비 등의 관리를, 최고의 환경을 위해서 안전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으며 공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내자구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출하된 생산품의 관리 및 판매까지 업무에 포함됩니다.”

**공장의 모든 설비 관리 위해 팀원 개개인의 능력이 필수!**

다양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설비물류팀의 큰 특징이라 하면 각자 맡은 일이 모두 다르다는 것. 팀장이 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유기적으로 조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김형준 대리는 기계 설비를 비롯해 내자 구매,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김형곤 사원은 물류를 책임지면서 영업을 같이 병행하고 김지훈 사원은 물류 부분의 제품관



리 및 원료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손승권 사원은 전기 설비 업무를, 이재형 사원은 기계 설비를 주로 하면서 안전도 관리하고 있다. 팀의 홍일점인 김보람 사원은 행정 업무와 내자 구매를 담당하면서 업무를 지원한다.

이처럼 SIMPAC메탈 공장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하는 설비물류팀. 이 팀만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 설비물류팀은 업무 특성상 개개인의 역량이 가장 잘 발휘되는 부서입니다. 생산팀의 서포터로서 생산의 차질이 없도록 공장의 모든 설비를 관리하다 보니 저마다의 긍지를 갖고 솔선수범하면서 프로 정신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자유롭게 재능 펼치도록 ‘가족 같은 팀’ 지향

장진석 팀장은 “각자 맡은 업무와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팀원 간에 의견개진이나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가족적인 분위기를 지향합니다.” 라며 자랑을 덧붙였다. 또한 “각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따뜻한 정이 넘치는 부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새해를 맞아 팀장과 팀원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덕담은 어떠할까. 장진석 팀장이 먼저 팀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 팀원들 모두 작년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도 열정적으로 역량을 발휘해 부서가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자기 발전이 곧 회사 발전입니다. 새해에도 모두 힘차게 뛰어봅시다.”

팀 내 분위기 메이커로 꼽힌 김보람 사원은 “2013년은 제 이름처럼 모두가 보람 있는 해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손승권 사원은 “뱀의 영리함처럼 모두 능력을 똑똑하게 키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지훈 사원은 “가끔 이벤트도 해주면서 팀원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팀장님 덕분에 우리 팀 분위기가 좋습니다.” 라면서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덕담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김형준 대리는 “올해는 팀원들의 바람대로 노총각 딱지를 떼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라며 스스로에게 덕담을 건네 팀원들의 환호와 지지를 받았다.

#### 새해, 또 다른 도전으로 경쟁력 키우고 성과 이뤄 나갈 것

장진석 팀장은 “2012년은 공장 준공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였습니다. 모두가 주인 정신으로 애쓰면서 도전했으며 그 결과 현재의 생산 설비와 물류의 안정적 정착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뤄낸 만큼 새해에는 또 다른 도전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라며 2013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또한 “팀의 인원은 적지만, 강하고 실력 있는 팀으로 성장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심기일전하여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라며 팀원들을 힘차게 독려했다.

#### MINI INTERVIEW

## “2013년의 나는 □□한 SIMPAC인이 되겠습니다!”

### 장진석 팀장

팀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SIMPAC인**이 되겠습니다.

### 김형준 대리

올해는 좀 더 팀원들과 가깝게 소통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부드러운 친구처럼 가진 SIMPAC인**이 되겠습니다.

### 손승권 사원

전기 안전 관리자로서 기술 향상을 위해 ‘전기 안전기술사’ 자격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역량을 위해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는 SIMPAC인**이 되겠습니다.

### 김지훈 사원

생산만 아는 생산인, 영업만 아는 영업인이 아닌, **모든 업무를 두루 알고 소화할 수 있는 만능 SIMPAC인**이 되겠습니다.

### 이재형 사원

어떤 일이든 주어진 일에 열정을 갖고 뛰어들고 싶어하는 자세로 **맡은 업무에서 전문가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는 SIMPAC인**이 되겠습니다.

### 김형곤 사원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올해는 업무를 좀 더 인정적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회사에 보탬이 되고 뛰어다니는 SIMPAC인**이 되겠습니다.

### 김보람 사원

사무실에서 항상 웃고 밝은 미소로 직원들을 대하고자 합니다. 나의 밝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이 덩달아 기분 좋아지도록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SIMPAC인**이 되겠습니다.

# SIMPAC NEWS

## SIMPAC홀딩스

### KBS 사랑의 열매, 성금 기부



지난 12월 28일,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 KBS 사랑의 열매 성금운동에 SIMPAC홀딩스와 최진식 회장이 각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연말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이웃과 친지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차가운 겨울 보내는 이들을 위해 SIMPAC의 이름으로 온정의 손길을 베풀고자 이번 성금이 전달되었다.

### SIMPAC그룹 부서장 워크샵 실시



2013년 SIMPAC그룹 Team leaders Workshop이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각 계열사 부장 및 차장을 대상으로 제주그랜드호텔에서 1박 2일간 실시되었다. 금번 워크샵은 크게 '팀 별 인적자원 경력관리 및 역량강화 방안'과 '각 팀의 2013년 중점 추진과제'라는 2가지 주제 아래 진행되었으며, 회의를 마친 후에는 도서 '무지개 원리'의 저자인 차동업 신부를 초청하여 '꿈이 흔들리는 시대의 7가지 행복법칙' 이란 주제로 강연 깊은 강연을 들었다. 강연 뒤 참석자들은 맥주 스탠딩 파티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었으며 이튿날 아침에는 올레길 17코스를 따라 걸으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훈훈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 SIMPAC



### 인천시 산업평화대상 수상



SIMPAC이 지난 12월 27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회 인천광역시 산업평화대상 시상식'에서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인천시 산업평화대상은 1991년 제1회 시상을 시작으로 올해 22회를 맞이하는 역사와 권위를 가진 상으로써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시상한다. 올해 산업평화대상 시상에는 단체부문 기업체 2개사, 노동조합 2개 조합, 개인부문 근로자 4명, 사용자 3명 등 총 11개 단체 및 개인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SIMPAC은 프레스 전문생산 기업으로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조 설립이래 지속하여온 무분규의 전통을 기반으로, 노사가 의견을 공유하고 장기발전플랜을 공유하는 등 동반자 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종업원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공헌의 공로를 인정받아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연말 지역사회에 1,000만원 기부



SIMPAC이 연말을 맞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역주민 돋기의 일환으로 성금 1천만 원을 지난 12월 28일 부평구청에 전달하였다. SIMPAC 전지중 대표이사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모은 성금 1천만 원을 흥미영 부평구청장에게 전달하였다. 전지중 대표이사는 "어느 해 보다 추운 겨울,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미약한 금액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시무식 행사 실시



SIMPAC은 지난 1월 2일 시무식 행사를 실시하였다. SIMPAC 전 임직원 및 사내협력업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제안제도 및 SIMPAC대상 등 2012년 유공자와 정년퇴직자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하는 시상 시간을 가졌다. 근로자 포상에 이어진 신년사에서 최진식 회장은 2012년 대외 경제환경의 악조건 속에서도 소기의 경영성과를 이루어낸 전 임직원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2013년 더욱 흑독한 경제환경 속에서의 생존을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변화와 혁신의 자세를 제시하며, 위기를 극복하여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자고 강조하였다.

### SIMPAC메탈로이



### 토요학습 시행



SIMPAC메탈로이는 지난 해 10월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지식근로자 양성을 위한 토요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포항본사, 서울사무소, 계열사인 당진의 SIMPAC메탈까지 3자간 학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되는 토요학습을 통해 회사 구성원으로서 우리 제품이 어떠한 서비스에 의해 어떻게 생산되고 활용되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는 업무적인 부분 이외의 교양적인 부분도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구성원의 지적 욕구를 충족하는 등 지식근로자 양성을 선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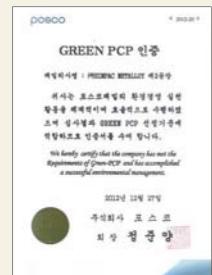
### 해병대 성금 전달



지난 12월 28일 SIMPAC메탈로이 이상일 사장 이하 임직원은 대한민국 해병 1사단을 방문하여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북한의 군사 도발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 등 국방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 경제발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나라를 지켜주는 우리 해병대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견승을 기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금 전달식에서 이상일 사장과 해병 1사단장은 앞으로도 민과 군이 협력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보, 나아가 국가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

# SIMPAC NEWS

## SIMPAC메탈로이



## SIMPAC메탈

### 시무식 행사 실시

SIMPAC메탈은 지난 1월 2일 사무동 로비에서 2013년도 시무식 행사를 가졌다. 금년 시무식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하기 위해 로비라운지에서 입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석한 임직원들 앞에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깐나페와 그와 어울리는 와인, 또한 근무자들을 위한 무알콜 샴페인 및 음료들이 준비되었다. 무대 위에는 현악4중주 공연단이 자리해 아름다운 선율을 뿐였다.

이날 행사는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SIMPAC대상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공로패 수상이 있었으며, 최진식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바보ZONE'의 예를 들며 바보의 우직함으로 기분에 충실했던 SIMPAC인이 되기를 당부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도 국내외 시장 상황은 피할 수 없는 도전이 될 것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치열하게 묻고 고민하며 답을 내야 할 때라는 이야기와 함께 위기에도 강한 SIMPAC그룹을 만드는 한 해가 되자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칭찬합니다



## SIMPAC메탈로이

합금철영업팀 허명일 과장이 생산품질팀 강오복 주임에게

### 당신을 칭찬합니다

칭찬하고 싶은 SIMPAC인은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요?

생산품질팀의 강오복 주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강오복 주임은 인근 거래처의 납품이나 구내 운송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의 특성상 한 달에 1~2일 이상의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고 젊은 직원들보다 활기차고 성실하게 근무합니다.

몇 년 전 운송업체 파업 때에는 심야에 납품주문을 받기 위해 저희 영업팀 직원 마냥 휴대폰을 머리에 두고 잠을 청했다고 들었습니다. 덕분에 타 회사와 달리 SIMPAC메탈로이는 납품을 원활히 할 수 있어서 회사 이미지가 향상된 기억이 납니다.

### 두 분은 평소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나이차가 나는 편이라 취미 생활 등을 공유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영업과 물류의 관련성 때문에 누구보다 가깝게 매일 얼굴을 맞대고 지냅니다. 강오복 주임도 저도 술은 자신 있지만 다음날 납품 때문에 늘 낙제하고 마시진 못했는데요, 기회가 되면 거하게 회포를 풀고 싶습니다. ^^

### 신년을 맞아 덕담 한 마디 부탁 드립니다.

2013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 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행복한 일들만 기원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임님! 사랑합니다.



## 다른그림찾기

윗쪽 사진과 다른 점이 아래쪽 사진에 네 군데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른편 답지에 체크하여 2월 28일까지  
 각 사 사보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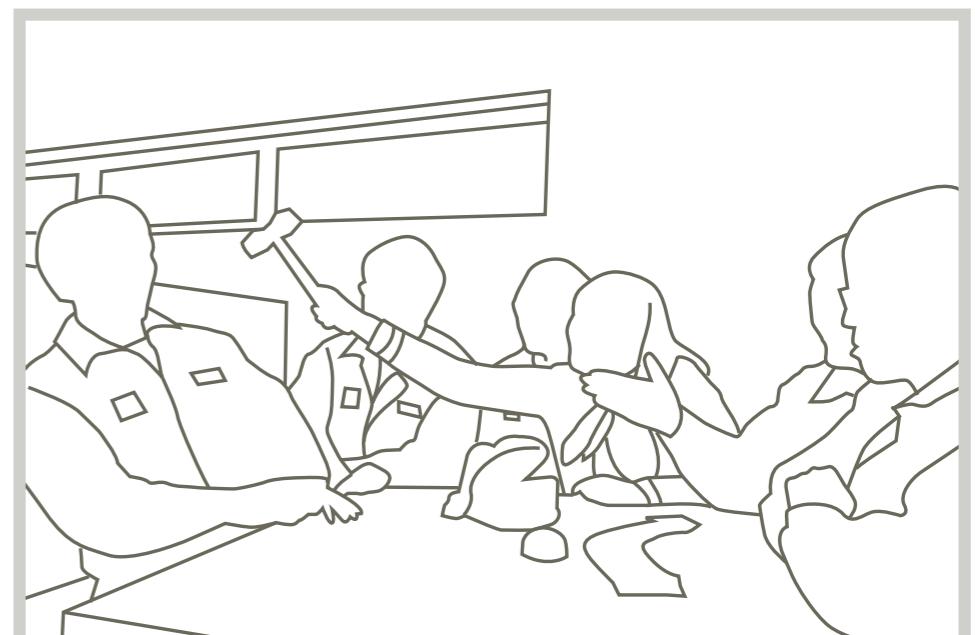


### 다른그림찾기 답지

답은 총 네 군데에 있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 각 사  
 사보 담당자에게 전달해주세요.

#### 〈참가자 정보〉

소속 : .....  
 성명 : .....



#### 다른그림찾기 지난 호 당첨자

SIMPAC 국내영업팀 · 정미혜 | 생산팀 · 안상규  
 SIMPAC메탈로이 전기로 · 최효찬 | 공무반 · 김대수  
 SIMPAC메탈 생산팀 · 이슬기



### 3.4 킬로미터 활주로

인생은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꾸준히 나아가는 게 좋다.  
인생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하는 속도가 아니라  
얼마나 옳은 방향으로 달리느냐 하는 방향이 중요하다.  
비행기는 이륙할 때 3.4 킬로미터 활주로를  
달리면서 연료의 절반을 소비한다.  
온 힘을 불태우는 것이다.

- 문용식의 『꾸준함을 이길 그 어떤 재주도 없다』 중에서 -



#### 祝! 결혼

SIMPAC메탈 경영지원팀 강승삼 사원

대학 후배 소개로 만나 3년 반 연애를 한 여자친구 이선미 양이 12월 23일 부로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의 신부와 결혼식을 올리고 보리카이로 신혼여행을 떠났으나 태풍이 와서 2박 3일 동안 리조트에 갇혀 있었던, 잊지 못할 추억도 남겼습니다.^^ 자연을 빌어 저희 앞날을 축복해 준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 祝! 탄생

SIMPAC메탈로이 인사총무팀 선광규 사원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 선출된 날, 저의 공주님도 탄생했습니다. 아빠를 쑥 빼닮은 선지안 양의 사진을 공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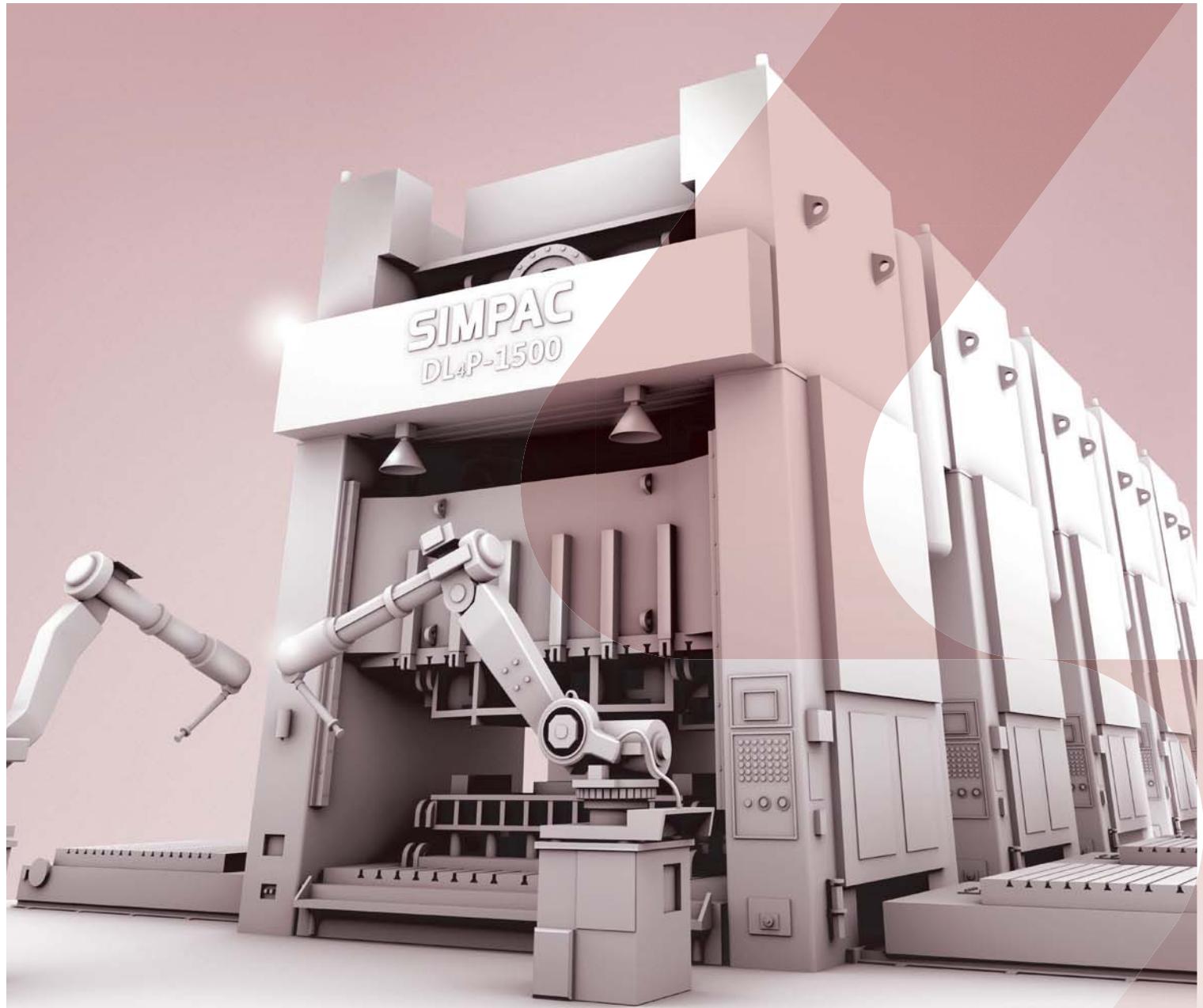
사랑스런 제 아내의 만삭 사진입니다.



태어난지 1주일 됐을 때입니다. 세상 모르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뽀송뽀송하죠?



세상 모르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 대한민국 대표 프레스 **SIMPAC!**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전 세계에 그 이름을 알리겠습니다.

## Global Press Maker - **SIMPAC**

**SIMPAC**은 대한민국 중심 산업인 LCD 금속부품 및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프레스를 생산하며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국내 1위의 프레스 메이커입니다. 세계 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해 사업구조 혁신을 통한 세계화, 수출전략강화, 서비스의 현지화를 이루어 명실공히 Global Supplier로서 성장하고 있는 **SIMPAC**은 태국, 이탈리아, 인도,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에 **SIMPAC**의 제품을 수출하며 그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